

2023. 8. 11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1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120 서울특별시  
다산콜재단



서울교통공사  
Seoul Metro

## 보도 자료

120다산콜재단  
운영본부 특화상담팀,  
기획관리본부 기획팀

담당부서 :

서울교통공사  
영업본부 영업지원처

운영본부장	심상원	02-3278-5790
기획실장	도종현	02-3278-5710
특화상담팀장	신명애	02-724-1525
담 당 자	김선영 (특화상담팀)	02-724-1653
	이경은 (홍보담당자)	02-3278-5723
영업지원처장	서길호	02-6311-9580
영업지원처 고객만족팀장	이재명	02-6311-9550
영업지원처 고객만족팀차장	정외광	02-6311-9554
담 당 자	김여진	02-6311-9553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2쪽

### 외국인·청각장애인 지하철 편의 향상을 위한 120다산콜센터-서울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

- 서울시 지하철 이용 외국인·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하는 서비스 협업 체계 구축
- 서울시 지하철역·고객센터 이용객에 120다산콜 5개국어·수어 전문 상담 연계·홍보

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(이이재 이사장)과 서울교통공사(백호 사장)가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8월 10일(목) 체결했다. 두 기관은 지하철 역사나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(1577-1234)에서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·안내가 필요한 경우 120다산콜센터(02-120)의 외국어 및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연계·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-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 행정상담 및 민원 접수, 교통, 생활·관광 안내, 생활통역 등 외국어(영어·중국어·일본어·베트남어·몽골어) 및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이와 연계하여 통역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.
  
-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“그동안 청각장애인이거나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, 이번 협약을 통해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 앞으로도 서비스의 부족함이 없는지 두루 살펴 교통 약자 등의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  
-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향상하고 120다산콜 외국어·수어 상담 서비스의 이용 저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 앞으로도 시민과 서울시를 잇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.”고 전했다.